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Cross-Cultural Study on the Pregnant and Childbirth Practices in Mother-Grandmother Generations of Korea, Hong-Kong, and the United State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안 진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 of Daegu

Full-time Lecturer : Min, Ha Ye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oo, An Ji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or similarities in pregnant and childbirth practices of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and of mother-grandmother generations in each culture.

The subjects were young mothers(YM) have baby from 2 to 2.5 years and their mothers or mothers-in-law(GM) in Korea(YM=118, GM=118), Hong Kong(YM=126, GM=78) and the United States(YM=105, GM=105). The subject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n pregnant and childbirth practices were constructed by specialists of child study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Statistical analyses were by Frequencies, Percentages, Crosstabs, One-way ANOVA, Scheffe'test, t-test.

Corresponding Author: Min Ha Yeoung,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Kumlak-I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Tel: 82-53-850-3545 Fax: 82-53-850-3520 E-mail:mhycd@hanmail.net

* 이 논문은 2000년 대한가정학회 제 53차 정기 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를 확장한 것임.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ther and grandmothers of Korea more tended to believe in supematal being of pregnancy, to expect son, to eat a resortive and a food to help conceive, to inhibit attending a funeral at the time of childbearing, to practice fetal education than of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did.
2. Relating sexual intercourse at the time of ovulation, maternal health care during the pregnancy, childbirth in hospital, husband's being in the hospital waiting room when their wife gave birth were much more prevailant in mothers than grandmothers did in Korea and Hong Kong.

주제어(Key Words): 주제어(Key Words): 임신 및 출산 풍습(pregnant and childbirth practices), 어머니-할머니 세대(mother-grandmother generations), 한국, 홍콩, 미국의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y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I. 문제제기

문화권의 관습과 가치체계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아동양육은 일반적으로 출산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방법을 문화적으로 규제한 것(Super & Harkness, 1997)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는 출산한 자녀의 수유, 잠 재우기, 이유, 배변훈련, 아기 데리고 다니는 방법,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 등 출산 이후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선주, 옥선화, 1993; 나은주 역; 2002; 박숙자, 1992; Brazelton, 1990; Morellei, Rogoff, Oppenheim, & Goldsmith, 1992; Okagaki & Sternberg, 1993). 그러나 최근 태내학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태중교육(박문일, 1999; 유안진, 1986;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rajan, Rao, & Radhakrishnam, 1999)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아동양육은 이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는 아동양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미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다만 전통사회 임신과 출산 풍습에 관한 유안진(1990, 1994)의 연구와, 전통사회에서 발전한 임신과 출산 풍습이 할머니 세대에서 어머니 세대로 넘어 오면서 어떻게 변모되고 유지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유안진과 민하영(2000)의 연구, 전통적인 태교에 관한 인식 연구(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 1996; 홍혜경, 1980)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풍습만을 언급했을 뿐, 우리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임신과 출산 풍습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문화적 보편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달적 적소¹⁾ 이론(developmental niche theory)에서처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아동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영향받음(Miller & Goodnow, 1995; Super & Harkness, 1986)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전통사회의 임신과 출산 풍속에 관한 문화적 고유성 또는 문화적 보편성에 관한 검증 자료는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아동양육 관습에 관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아동양육의 문화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에 전승되고 있는 임신 및 출산²⁾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 자료(유안진, 민하영, 2000)를 문화간으로 확장시켜,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 1) 발달적 적소란 아동과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라는 것을 전제한다. 아동은 아동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제 1하위 체계, 아동 양육에 대한 관습의 제 2 하위체계, 그리고 양육자의 심리라는 제 3하위 체계가 서로 조화와 변형을 경험하며 아동발달의 맥락을 구성한다고 본다(Super & Harkness, 1986).
- 2) 우리 나라의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진과 민하영(2000)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있는 아동양육 풍습의 문화적 고유성 또는 문화적 보편성(문화간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문화내 세대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임신과 출산 풍습의 세대간 전이의 안정성을 문화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권으로 분류되지만 1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인 영국의 통치를 통해 서구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홍콩(남수중, 1996)을 비교 문화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독교 문화권이면서, 해방이후 서구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뒤 가장 활발히 문화적 교류를 해음으로써 우리 문화의 서구화에 영향을 준 미국을 비교 문화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목적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임신 및 출산 풍습은 한국, 홍콩, 미국의 세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임신 및 출산 풍습은 한국, 홍콩, 미국의 세 문화내 어머니-할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의 문화적 고유성 및 독특성 뿐 아니라 문화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우리 나라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적 맥락(context)의 기초 자료(Belsky, 1984; Bronfenbrenner, 1986; Rogoff, 1990; Rogoff, Gauvain, & Ellis, 1984)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세 또는 2세 반까지의 영유아를 둔 한국, 홍콩, 미국의 어머니와 그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은 각각 118명, 미국은 각각 105명, 홍콩은 어머니 126명 그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 78명 등 두 세대에 걸쳐 총 6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은 제보자 모집 표집

(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등 비확률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어머니 연령의 경우 20대 19.5%, 30대 80.5% 홍콩은 20대 11.6%, 30대 80.1%, 40대 .08%, 미국의 경우 20대 81.6%, 30대 18.4%였다. 할머니 세대의 연령은 50대 47.7%, 60대 36.4%, 70대 10%, 홍콩의 경우 50대 22%, 60대 57.5%, 70대 17.9%였다. 미국의 경우 40대 22.8%, 50대 61.9%, 60대 13.3%, 70대 .02%였다.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의 평균 출생 연도, 결혼 연도, 첫아이 출생년도를 살펴보면, 한국, 홍콩, 미국의 어머니들은 평균 1967년, 1972년 그리고 1964년에 각각 태어났다. 그리고 평균 1992년, 1993년, 그리고 1991년도에 결혼하였으며, 평균 1994년, 1994년, 그리고 1995년도에 각각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한국, 홍콩, 미국 할머니들은 평균 1939년, 1935년, 1946년도에 출생하여, 평균 1960년, 1956년, 1966년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평균 1962년, 1958년, 1968년도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2. 측정도구

질문지에 의한 임신 및 출산 풍습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김용덕, 1994; 김용숙, 1993; 유안진, 1983, 1990, 1994; 홍혜경, 1980) 및 한국, 홍콩, 미국의 아동학자간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선행 연구 및 삼국 학자간 공동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된 임신 및 출산 관련 풍습을 한국어로 정리한 후, 7인의 한국 아동학 전공자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홍콩과 미국 학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내용을 모르는 제 3자에게 재번역하도록 함으로써, 영문 출산 풍습이 국문 출산 풍습과 대등하게 표현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임신 및 출산 풍습을 주요 준거 자료로 하여 구성된 임신 및 출산 풍습의 측정 문항은 임신(①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 ②임신하기 위한 노력, ③임신 중 건강 관리, ④태교)과 출산(①임부 및 가족의 출산준비, ②출산)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은 Yes/No 응답의 폐쇄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임신

중 건강관리와 태교는 각각 '거의 지키지 않았다(1점)', '어느 정도 지켰다(2점)', '많이 지켰다(3점)'의 3점 Likert형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척도의 내적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72$,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한국의 자료 수집은 훈련된 아동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료 조사원이 첫 아이 연령이 2세부터 2세 반 까지의 어머니와 그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훈련된 아동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료 조사원이, 첫 자녀의 연령이 2세부터 2세 반까지인 대구시내 및 인접지역 거주의 모 세대를 잠정 표집하였다.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설문조사의 가능여부를 사전 전화 연락으로 알아본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료수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조사원은 모 세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된 설문지는 우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도록 요청했다. 조모 세대용 질문지는 자료 조사원이 모 세대의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내용을 일일이 읽어준 후, 표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홍콩의 자료 수집은 Hong Kong Baptist 대학의 Lau 교수가, 미국의 자료 수집은 미국 Utah State 대학의 Schwandt 교수가 각각 주관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한국에 보내 주었다.

4. 자료분석

한국, 홍콩과 미국에서 각각 수집된 자료는 한국에서 Window형 SPSS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정은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은 Crosstabs, One-way ANOVA, Scheffe' 추후 검증과 t 검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임신 및 출산 풍습의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임신 및 출산 풍습 중 임신 및 출산 풍습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한국, 홍콩, 미국의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60.8%가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대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콩은 76.5%, 미국은 50.5%가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삼신할미라는 초월적 존재가 임신과 출산을 관장(유안진, 1994)한다고 여기는 문화적 전통 때문에 홍콩 및 미국에 비해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아 성별에 대한 기대에서 한국과 홍콩의 어머니는 각각 62%, 44.8%가 아들을 바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7.6%, 20.7%가 아들을 몹시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27.6%만이 아들을 바랐으며 이들 중 9.5%만이 아들을 몹시 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홍콩이 미국에 비해 높은 남아선호의식을 나타냈던 것은 유교 문화적인 전통의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유교 문화권임에도 한국은 홍콩에 비해 더 강한 남아선호의식을 나타냈다. 이는 홍콩이 지난 100년간의 영국 통치를 거치면서 유교 문화적인 남아선호의식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신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약 복용과 특정 음식 기피에서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문화 모두 임신하기 위해 보약을 먹는 경우는 적었으나, 미국에서는 한국 및 홍콩과 달리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는 한국이 홍콩 및 미국에 비해 많았으며 홍콩은 거의 없었다. 한편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거나 임신 기원용 부적을 지니는 경우는 세 문화 모두 유의한 차이 없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적었다.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임

산부가 세욕이나 세발하는 경우 한국이나 홍콩은 과반수 이상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87.1%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목욕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출산이 가까워짐을 이유로 특별히 세욕하거나 세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부의 가족들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72%나 되었지만 홍콩 15.3%, 미국은 1.0%밖에 안되었다. 이는 출산일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홍콩 및 미국과 다른 한국적 풍속으로 해석된다.

과학적 차원에서의 임신 중 건강관리는 한국, 홍콩 및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이 한국 및 홍콩에 비해 건강관리 수준이 높았으며 한

국은 홍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태교와 관련하여 한국, 홍콩 및 미국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태교 수준은 미국 및 홍콩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전통적으로 태교를 강조(유안진, 1994)해 왔기 때문에, 홍콩 및 미국에 비해 높은 정도의 태교 실천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장소,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 출산 풍습을 살펴보면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출산장소의 경우 홍콩과 미국은 90% 이상이 병원인데 반해, 한국은 62.7%만이 병원이었으며 36.9%가 자기 집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 한국 및 홍콩의 경우 남편이 병원 대기실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

<표 1>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영역	내용	구분	한국(n=236) 빈도(%)	홍콩(n=204) 빈도(%)	미국(n=210) 빈도(%)	Pearson χ^2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초월적 존재 믿음	예	141(60.8)	47(23.5)	103(49.5)	62.23***
		아니오	91(39.2)	153(76.5)	105(50.5)	
	출산아 성별에 대한 기대	아들 많이 바람	88(37.6)	42(20.7)	20(9.5)	70.41***
		아들 약간 바람	57(24.4)	49(24.1)	38(18.1)	
		아들,딸 상관없음	78(33.3)	88(43.3)	117(55.7)	
딸 약간 바람		7(3.0)	10(4.9)	20(9.5)		
	딸 많이 바람	4(1.7)	14(6.9)	15(7.1)		
임신하기 위한 노력	보약 복용	예	45(19.1)	26(12.8)	17(8.1)	11.56**
		아니오	191(80.9)	177(87.2)	193(91.9)	
	특정 음식 기피	예	57(24.2)	6(3.0)	24(11.4)	43.29***
		아니오	179(75.8)	197(97.0)	186(88.6)	
배란일 부부관계	예	43(18.2)	46(22.7)	39(18.6)	1.61(ns)	
	아니오	193(81.8)	157(77.3)	171(81.4)		
부적 지남	예	13(5.5)	7(3.4)	3(1.4)	5.42(ns)	
	아니오	223(94.5)	196(96.6)	207(98.6)		
구 분			한국 평균(S.D)	홍콩 평균(S.D)	미국 평균(S.D)	F 값
임신 중 건강관리	임신 중 건강관리 수준(n=611)		12.0(3.0) a	13.2(3.5) b	14.7(1.8) c	74.5***
태교	태교 실천(n=633)		11.8(2.5) a	9.8(2.7) b	9.0(2.4) c	77.7***

주) **p<.01 ***p<.001

주) 사례수(한국 236명, 홍콩 204명, 미국 210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주) abc 서로 다른 문자간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2〉 출산 풍습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차이

영역	내용	구분	한국(n=236) 빈도(%)	홍콩(n=204) 빈도(%)	미국(n=210) 빈도(%)	Pearson χ^2
임신 및 가족의 출산준비	세욕, 세발	예	161(68.2)	119(58.6)	27(12.9)	151.81***
		아니오	75(31.8)	84(41.4)	183(87.1)	
출산준비	장례식, 상가 안감	예	170(72.0)	31(15.3)	2(1.0)	295.82***
		아니오	66(28.0)	171(84.7)	208(99.0)	
출산	출산 장소	병원	148(62.7)	184(91.1)	199(95.7)	113.21***
		자기 집	87(36.9)	14(6.9)	6(2.9)	
출산	출산시 남편위치	기타	1(.4)	4(2.0)	3(1.4)	275.78***
		직장	83(35.3)	55(27.1)	2(1.0)	
출산	출산시 남편위치	병원대기실	100(42.6)	92(45.3)	56(26.7)	275.78***
		산모와 분만실에	11(4.7)	30(14.8)	145(69.0)	
출산	출산시 남편위치	기타	41(17.4)	26(12.8)	7(3.3)	275.78***

주) ***p<.001

주) 사례수(한국 236명, 홍콩 204명, 미국 210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으나, 미국은 산모와 함께 분만실에 있는 경우가 2/3정도로 가장 많았다. 남편이 직장에 있었던 경우 미국은 거의 없었으나, 한국과 홍콩은 1/3정도의 남편이 직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 및 출산 풍습의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내 세대간 차이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내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의 경우 한국, 홍콩, 미국은 모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 모두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경우가 믿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어머니 세대보다 할머니 세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은 한국과 달리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경우보다 믿지 않는 경우가 두 세대 모두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어머니 세대가 할머니 세대보다 신적인 초월적 존재를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는 96.2%가 신적인 존재를 믿는 반면, 할머니 세대는 97.1%가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아의 성별에 대한 기대의 경우 한국, 홍콩,

미국 모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 출산을 기원하는 경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국 문화 중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세대간으로 살펴보면 한국, 홍콩, 및 미국 모두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높은 남아 선호 의식을 나타냈다.

임신하기 위한 노력 중 보약 복용과 특정 음식 기피에서, 한국과 홍콩은 두 세대간 차이 없이 보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특정 음식을 기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두 세대 모두 보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영양제, 비타민 등과 같은 보약 복용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할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보다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관련한 부부관계의 경우 한국, 홍콩, 미국 모두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한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었다. 그러나 세 문화 모두 어머니 세대는 할머니 세대보다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하기 위해 부적을 지닌 경우는 세문화 모두에서 각 세대간 거의 없으나, 홍콩 및 미국과 달리 한국의 할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보다 임신

<표 3> 임신 풍속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내 어머니-할머니 세대간 차이

영역	내용	구분	한국(n=236)		홍콩(n=204)		미국(n=210)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초월적 존재 믿음	예	62(53.9)	79(67.5)	36(28.8)	11(14.7)	100(96.2)	3(2.9)
		아니오	53(46.1)	38(32.5)	89(71.2)	64(85.3)	4(3.8)	101(97.1)
	Pearson χ^2	4.51*		5.21*		180.96***		
	출산아 성별에 대한 기대	아들 많이 바람	30(25.4)	58(50.0)	15(12.0)	27(34.6)	6(5.7)	14(13.3)
		아들 약간 바람	34(28.8)	23(19.8)	32(25.6)	17(21.8)	18(17.1)	20(19.0)
아들,딸 상관없음		45(38.1)	33(28.4)	60(48.0)	28(35.9)	54(51.4)	63(60.0)	
딸 약간 바람		6(5.1)	1(.9)	9(7.2)	1(1.3)	14(13.3)	6(5.7)	
Pearson χ^2	17.43**		17.24**		15.26**			
임신 하기 위한 노력	보약 복용	예	26(22.0)	19(16.1)	20(16.0)	6(23.1)	17(16.2)	0(.0)
		아니오	92(78.0)	99(83.9)	105(84.0)	72(40.7)	88(83.8)	105(100)
	Pearson χ^2	1.25(ns)	2.97(ns)	18.50***				
	특정 음식 기피	예	28(23.7)	29(24.6)	2(1.6)	4(5.1)	0(.0)	24(22.9)
		아니오	90(76.3)	89(75.4)	123(98.4)	74(94.9)	105(100)	81(77.1)
	Pearson χ^2	.02(ns)		2.08(ns)		27.10***		
	배란일 부부 관계	예	36(30.5)	7(5.9)	41(32.8)	5(6.4)	39(37.1)	0(.0)
		아니오	82(69.5)	111(94.1)	84(67.2)	73(93.6)	66(62.9)	105(100)
	Pearson χ^2	23.92***		19.09***		47.90***		
	부적 지남	예	2(1.7)	11(9.3)	3(2.4)	4(5.1)	0(.0)	3(2.9)
아니오		116(98.3)	107(90.7)	122(97.6)	74(94.9)	105(100)	102(97.1)	
Pearson χ^2	6.59*		1.07(ns)		3.04(ns)			
영역	구분	한국 평균(S,D)		홍콩 평균(S,D)		미국 평균(S,D)		
임신 중 건강관리	임신 중 건강관리 수준	14.3(2.2)	10.1(2.4)	15.0(2.1)	10.4(3.3)	15.0(1.8)	14.3(1.8)	
	t 값	12.7***		11.8***		3.0*		
태교	태교 실천	12.1(2.4)	11.4(2.5)	10.6(2.5)	8.3(2.4)	9.4(2.6)	8.7(2.2)	
	t 값	2.28*		6.35***		2.01*		

주) *p<.05, **p<.01 ***p<.001

주) 사례수(한국 어머니 118명, 할머니 118명, 홍콩 어머니 126명, 할머니 78명, 미국 어머니 105명, 할머니 105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을 위한 부적 소지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건강관리는 세 문화 모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을 보면 임신 중 건강관리는 미국이 한국과 홍콩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세대간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세대의 경우 한국과 홍콩의 건강관리는 미국 어머니 세대에 비해 크게 뒤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과 홍콩의 할머니 세대에서 임신 중 건강관리가 미국의 할머니 세대에 비해 상당히 빈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교 역시 세 문화 모두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에서 높은 태교 수준을 보임으로써 세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마도 태아학의 발달로 최근 태교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박문일, 1999)되면

〈표 4〉 출산 풍속에 관한 한국, 홍콩, 미국 문화내 어머니-할머니 세대간 차이

영역	내용	구분	한국(n=236)		홍콩(n=204)		미국(n=210)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임신 및 가족의 출산 준비	세욕, 세발	예	87(73.7)	74(62.7)	77(61.1)	42(54.5)	27(25.7)	0(.0)
		아니오	31(26.3)	44(37.3)	49(38.9)	35(45.5)	78(74.3)	105(100)
	Pearson χ^2	3.03(ns)		.85(ns)		30.98***		
	장례식, 상가 안감	예	83(70.3)	87(73.7)	14(11.1)	17(22.4)	0(.0)	2(1.9)
아니오		35(29.7)	31(26.3)	112(88.9)	59(77.6)	105(100)	103(98.1)	
Pearson χ^2	.34(ns)	4.63*	2.02(ns)					
출산	출산 장소	병원	117(99.2)	31(26.3)	126(100)	58(76.3)	104(99.0)	95(92.2)
		자기 집	0(.0)	87(73.7)	0(.0)	14(18.4)	0(.0)	6(5.8)
		기타	1(.5)	0(.0)	0(.0)	4(5.3)	1(1.0)	2(1.9)
	Pearson χ^2	137.9***		32.76***		6.7*		
	출산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	직장	23(19.5)	60(51.3)	12(9.5)	43(55.8)	0(.0)	2(1.9)
		병원대기실	82(69.5)	18(15.4)	71(56.3)	21(27.3)	2(1.9)	54(51.4)
산모와 분만실에		7(5.9)	4(3.4)	28(22.2)	2(2.6)	102(97.1)	43(41.0)	
기타	6(5.1)	35(29.9)	15(11.9)	11(14.3)	1(1.0)	6(5.7)		
Pearson χ^2	78.78***		59.43***		77.86***			

주) *p<.05, **p<.01 ***p<.001

주) 사례수(한국 어머니 118명, 할머니 118명, 홍콩 어머니 126명, 할머니 78명, 미국 어머니 105명, 할머니 105명)의 경우 변수에 따라 결측치에 의한 감소가 나타나기도 함.

서, 각국의 어머니 세대에서 태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세대에서 태교 실천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한국의 할머니 세대의 태교 실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태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산 풍습 중 임부 및 가족의 출산 준비의 경우 한국과 홍콩은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 없이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임신부가 세욕 또는 세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임신부가 세욕 또는 세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할머니 세대와 달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다소 나타났다. 한국은 두 세대간 차이 없이 출산이 가까워질 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상가나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임신부의 출산과 관계없이 두 세대 모두 가족과 친지들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미국과 같이 대부분 임신부의 출산과 관계없이 가족과 친

지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만을 보면 할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에 비해 그러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장소 및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를 세대간으로 살펴보면, 세 문화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장소를 세대간으로 살펴보면, 세 문화내 어머니 세대 모두와 미국의 할머니 세대는 거의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할머니 세대는 병원보다 가내(家內) 출산의 경향이 높았다. 홍콩의 할머니 세대는 가내(家內) 출산보다 병원 출산 경향이 상당히 높았지만 어머니 세대보다 병원 분만률은 낮았다.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를 살펴보면, 한국과 홍콩의 경우 어머니 세대에서는 남편이 병원 대기실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에서는 남편이 직장에 있었던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홍콩의 젊은 아버지들이 부인의 임신과

출산에서 전통적인 권위적 태도를 버리고 자녀양육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Ho & Kang, 1984)와 일관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의 남편 중 99%가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 중 97% 이상이 산모와 분만실에 함께 있었다. 할머니 세대의 남편도 92.4%가 병원에 있었지만, 어머니 세대와 달리 41.0%만이 분만실에 있었고 51.4%가 병원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생후 1년된 영유아의 양육에 미국 남편의 참여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Ninio & Rinott, 1988)와 일관성이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임신 및 출산 풍습을 주요 준거 자료로 하여 한국, 홍콩, 미국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을 문화간 및 문화내 세대간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각 문화내 세대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중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했으며, 이는 어머니 세대보다 할머니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홍콩 및 미국은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지는 않았으나, 할머니 세대보다 어머니 세대에서 오히려 신적인 존재를 더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 성별에 대한 기대 역시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홍콩 및 미국에 비해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와 비교할 때 한국 어머니 세대의 남아 선호의식은 다소 낮아지고 있다. 한국과 같이 유교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홍콩에서도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할머니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 세대의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편 미국은 남아선호의식이 거의 없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어머니 세대에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은 홍콩 및 미국에 비해 임

신과 출산이 초월적 신적 존재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갖고 있으며,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은 비록 할머니 세대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한국 내 어머니 세대의 의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신하기 위한 노력 중 보약복용과 특정 음식 기피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상당히 달랐다. 한국 및 홍콩이 임신을 위해 보약을 복용하지만 두 세대간에 걸쳐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임신을 위해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지만 어머니 세대에서 보약 복용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 모두 임신을 위해 특정 음식을 가려먹는 경우가 있으나, 보편적 양상은 아니다. 홍콩에서는 임신을 위해 특정 음식을 가려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경우 할머니 세대에서 특정 음식을 가려먹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어머니 세대에는 거의 없었다. 임신을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한국, 홍콩, 미국 모두 할머니 세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어머니 세대에서는 할머니 세대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에서 임신을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한국, 홍콩, 미국 모두에서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임신을 위해 부적을 소지하는 경우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의 할머니 세대에서 임신을 위해 부적을 소지하는 경우가 약간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임신하기 위해 보약을 복용하거나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것은 홍콩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좀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 양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한국,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에 거의 없었던 풍습으로, 어머니 세대에 부분적이거나 새롭게 나타난 임신 풍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임신하기 위해 부적을 몸에 소지하는 경우는 세 문화내 할머니 세대에서 극히 일부분 나타났지만, 두 세대 모두 임신을 위해 부적을 몸에 지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임신하기 위해 부적을 몸에 소지하는 문화적 풍습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멸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임부 및 가족의 출산 준비와 관련한 행동은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출산 준비로서 임신부가 세욕하거나 세발하는 것은 한국 및 홍콩에서는 세대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어머니 세대에서 그러한 양상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매우 부분적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임신부의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장례식이나 상가에 가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는 세대간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은 전혀 그러한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 홍콩의 경우 할머니 세대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어머니 세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출산 준비로서 임신부가 세발하거나 세욕하는 것은 한국 및 홍콩의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장례식이나 상가에 가지 않는 것은 홍콩 및 미국 없는 한국적 풍속으로,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한국의 출산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임신 중 건강관리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그리고 각 문화내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한국 및 홍콩 할머니 세대가 미국 할머니 세대에 비해 임신 중 과학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한국 및 홍콩이 미국에 비해 임신 중 건강관리가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만을 고려해 보면, 한국, 홍콩, 미국은 임신 중 건강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신 중 건강관리 문화는 산업화를 토대로, 할머니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적 혜택과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홍콩의 어머니 세대에서 새롭게 발전한 임신 관련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태교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뿐 아니라 각 문화내 세대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홍콩 및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태교

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어머니 세대에 대한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세대, 그리고 한국의 할머니 세대에 대한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할머니 세대는 한국의 어머니 세대보다 낮은 태교 실천 수준을 보이나, 할머니 세대에 비해 높은 태교 실천 수준을 보이는 홍콩 및 미국 어머니 세대보다도 높은 태교 실천 수준을 보였다. 세 문화 모두 할머니 세대에 비해 어머니 세대의 태교 실천 수준이 높은 것은 태아학의 발달로 최근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의 할머니 세대의 태교 실천 수준이 홍콩 및 미국 어머니 세대의 태교 실천 수준보다 높다는 사실은 태아학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부터 한국에서 태교를 중요하게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태교 실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며, 한국의 높은 태교 실천 수준은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출산과 관련한 출산장소 및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는 한국, 홍콩, 미국 문화간 그리고 각 문화의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출산장소와 관련하여 한국은 홍콩 및 미국과 달리 병원 외에 자기 집에서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세대만을 고려할 경우 99% 이상 병원에서 분만하는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같이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의 경우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달리 병원보다 집에서 아기를 분만하는 가내(家內) 분만 경우가 더 많았다.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세대가 병원 외 장소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는 병원 중심의 분만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내(家內) 분만하는 경우가 부분적이거나 나타났다.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 미국 할머니 세대의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가 분만하는 병원에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 및 홍콩 할머니 세대의 남편들은 병원보다 직장에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한국 및 홍콩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만을 고려해 보면, 미국 어머니 세대의 남

편들처럼 대부분 아내가 분만하는 병원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 산모와 함께 분만실에 있는 것에 비해, 한국 및 홍콩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은 분만실보다는 병원 대기실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거의 대부분 병원 분만을 하는 것에 비해 한국 및 홍콩은 병원 외에 가내(家內) 분만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 및 홍콩의 할머니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 -특히 한국의 할머니 세대는 병원 분만 보다 가내(家內) 분만이 더 많았다.- 일 뿐, 한국 및 홍콩의 어머니 세대는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같이 거의 모두 병원 분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내 출산 시 미국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특히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은 병원내 분만실에서 아내의 분만을 지켜봐 주지만 한국 및 홍콩의 남편들은 병원이 아닌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및 홍콩의 할머니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은 대부분의 병원 대기실에서 아내의 분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요약과 결론을 종합하면,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남아선호의식, 태고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가나 장례식에 가지 않는 행동은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에 걸쳐 한국에서 보편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임신 및 출산 풍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것, 과학적 측면에서의 임신 중 건강관리, 병원 분만, 출산 시 남편이 병원 대기실에서 출산을 기다려 주는 것은 한국의 할머니 세대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지만,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세대와 유사하게 한국의 어머니 세대에서도 부분적 현상으로 또는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풍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세대간 변화가 안정적임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어머니 세대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측면에서의 임신 중 건강관리 수준, 분만 장소, 그리고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는 할머니 세대로부터 상당한 속도로 변모한 임신 및 출산 풍습이

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양육 문화 중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임신 및 출산 풍습을 주요 준거 자료로 하여 비교문화적 시각을 토대로 홍콩 및 미국과 구분된 또는 유사한 한국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홍콩, 미국 문화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한국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의 세대간 전이 및 차이의 상대적 변화 속도를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임신 및 출산 풍습을 포괄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및 출산 풍습을 비교문화의 주요 준거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홍콩 및 미국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미국의 경우 히스패닉과 흑인 문화를 배제한 점에서 미국의 임신 및 출산 풍습을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고선주, 옥선화(1993). 부모기 전이에 관한 연구 II: 부모기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 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1.
- 김용덕(1994). *한국의 풍속사*. 서울: 밀알
- 김용숙(1993). *한국여속사*. 서울: 민음사
- 나은주 역(2002). *출산과 육아의 풍속사*. 서울: 사람과 사람.
- 남수중(1996). *홍콩편람*. 96-16.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박문일(1999). *태고는 과학이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박숙자(1992).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pp. 141-18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유안진(1983). *한국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

- 화연구원. 29-116.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 민하영(2000). 출산 풍속에서의 모-조모의 세대간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8), 99-109.
- 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1996). 한국 임부의 태교요인-동양 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가관리-. *대한간호학회지*, 26(2), 345-358.
- 홍혜경(1980). 한국여성의 태교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동학회지*, 1, 1-1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azelton, T. B. (1990). Commentary : Parent-infant co-sleeping revisited. *Ab Initio*, 2(1), 1-7.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Ho, D. Y. F. & Kang T. K. (1984) Integral comparison of child rea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 Hong Kong.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04-1016.
- Holterman, M. J., Ashiru, O., Abdulla, Ra-id, Blew, G., Sundararajan, S., & Rao, S. (1999), Clinical relevant embryology: New approaches to education, *Pediatrics*, Vol. 104 i3 784.
- Miller, P. J. & Goodnow, J. J. (1995). Cultural practice: Toward an integration of culture and development. In J. J. Goodnow, P. J. Miller & F. Kessel(Eds.), *Cultural practices as a contexts fo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67(pp.5-16). San Francisco: Jossey-Bass.
- Morelli, G. A., Rogoff, B., Oppenheim, D., & Goldsmith, D. (1992). Cultural variation in infants' sleeping arrangements: Questions of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04-613.
- Ninio, Anat, & Nurith Rinott. (1988). Fathers' involvement in the care of their infants and their attributions of cognitive competence to infants. *Child Development*, 59, 652-663.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Y: Oxford Univ. Press.
- Rogoff, B., Gauvain, M., & Ellis, S. (1984). Development viewed in its cultural context, In M. H. Bearnstein & M. E. Lamb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C. M. & Harkness, S.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 Super, C. M. & Harkness, S. (1997). The cultural structuring of child development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swathi, (2nd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 Basic process and human development(pp.1-40) Needham Heights, MA: A Viacom Company.

(2003년 1월 25일 접수, 2003년 3월 28일 채택)